Photo by © 고경원

메마른 목회 현장을 깨운 아과비바(Aguaviva)의 기적

고영규 목사는

브라질 쌍파울로 대학교(Universidade de Sao Paulo)와
브라질 장로교 신학교(Southern Presbyterian Seminary of Brazil) 및
남아공 University of Free State(Th. M.)를 졸업하고,
이후 쌍파울로 연합교회 부목사로 섬겼다.
2001년 아과비바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현지인과 한인들을 제자훈련으로 섬기고 있다.

브라질. 축구와 삼바 이외에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마존 밀림과 높은 언덕 위에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예수의 동상 정도이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장로교단 소속 목회자들 사이에 한국 교회를 배우려는 열풍이 뜨겁다는 소문이다. 브라질 장로교단 총회 총무인 씨쎄로 목사(Rev. Cicero Ferreira da Silva)는 이렇게 증언한다.

"저희 브라질 장로교단에 소속된 교회 중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이것은 브라질 장로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장로교단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오순절 교단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는 전혀 이벤트를 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일어난 제자훈련 열풍

씨쎄로 목사가 말하는 교회는 바로 브라질 상파울로 시에 있는 아과비바(Aguaviva)교회이다. 우리말로 '생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과비바교회는 지난 2001년 당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었던 한인 1.5세와 2세 6명을 데리고 고영규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현재는 장년만 약 25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중에 한인과 브라질인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는 아과비바교회를 한인 교회로, 브라질 장로교단에서는 브라질 지역 교회로 보고 있다. 모든 예배는 포르투갈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면서 한국어는 통역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어쨌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지금 브라질 장로교단의 주목을 받게 된 비결은 바로 고영규 목사가 제자훈련으로 사람을 키우는 목회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아과비바교회는 고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고, 지금까지 꾸준히 제자훈련을 실시하면서 성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맛보고 있다.

그 열매의 핵심에는 고 목사가 아과비바교회를 개척할 때 그와 함께했던 6명의 1.5세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제자훈련을 통해 고 목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고 목사의 곁을 지켜준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다. 이들은 때로 고 목사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섬김을 요구받았지만 묵묵히 그것에 순종했고, 그런 이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섬김을 통해 아과비바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맛보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고영규 목사는 이들 중 몇 명을 장로로 세워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역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나이가 채 40도 되지 않은 청년들이었고, 이것은 브라질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그래서 많은 교단 원로와 동료 목회자들이 고 목사에게 우려와 걱정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고 목사가 왜 그 젊은이들을 장로로 세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도 고 목사처럼 젊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겠다며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고 목사는 단순히 젊은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제자훈련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그 즈음, 브라질 장로교단을 책임지던 총회장이 아과비바교회의 소문을 듣고 고영규 목사를 만나자고 했다. 그는 고 목사에게 오랫동안 침체되고 정체된 브라질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자훈련밖에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브라질 교회를 위해서 아과비바교회에서 실시한 제자훈련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고 목사는 자신이 실시한 제자훈련은 옥한흠 목사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밝히고, 총회장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 직접 참석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2005년, 고 목사는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 중진 5명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CAL세미나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총회장은 고 목사에게 아예 브라질 장로교단 주최로 CAL세미나를 열자고 제안했다. 강사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부르고, 제자훈련 현장으로 아과비바교회를 소개하자는 것이었다.

고 목사는 아바비바 교회가 그럴 여력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브라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여기고 총회장의 제안을 승낙했다. 그렇게 해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아과비바교회에서 브라질 CAL세미나가 진행됐고, 지금까지 총 400여명의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참석했다. 놀라운 소식은 지금 브라질 내 약 11개 지역에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배우려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씨쎄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제자훈련 목회철학이야말로 침체되고 정체된 브라질 교회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입니다. 많은 브라질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 제자훈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브라질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 제자훈련을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5세 목사가 바라본 한인 교회의 현실

브라질 교회에 제자훈련의 열풍이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한 주인공인 고영규 목사는 10대에 가족과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온 1.5세로, 브라질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아직까지 브라질 한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민 1세인 점을 감안하면, 1.5세 목회자라는 고 목사의 이 독특한 정체성은 그의 사역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것은 결국 아과비바교회를 개척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어느 날 상파울로 시내에 있는 유대인 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회당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는데, 경비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유대인만 들여보내더라고요. 치안 때문에 그러는 거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한인 교회도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유대인만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한인 교회도 한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고 목사의 말은 한인 교회가 한인 커뮤니티처럼 한인만 모이는 교회라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교회는 어떤 한 민족이나 인종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브라질 한인 교회들은 오직 한인들만 모여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고 목사의 지적이다. 고 목사는 그 이유가 이민 1세들을 중심으로 한 목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브라질은 이민 역사가 4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 초기에, 교포 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민자들이 브라질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교회를 통해 브라질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민 1세들을 위한 교포 교회의 목회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민 1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의 대상이 2세들로 옮겨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

브라질 장로교단 소속인 아과비바교회는 침체된 브라질 교회에서 제자훈련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브라질 장로교단 총회장이 한국의 CAL세미나에 참석한 후, 브라질 CAL세미나가 생겼을 정도다. 이 교회 담임인 고영규 목사는 이민 1.5세로, 1세 위주로 목회하는 당시 한인 교회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현지인과 한인이 함께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회가 여전히 1세 위주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브라질 교포 교회에서 리더십을 잡고 있는 것은 1세입니다. 한 10~20년 정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교체되겠지만, 문제는 그동안 교포 교회들이 2세들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1세들만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면 결국 그 교회에는 한인들만 모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본 유대인 회당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고 목사의 생각이다. 그는 한인 교회가 유대인 회당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민 2세들을 통해 브라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발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민 2세들을 키우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인 교회들은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고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한인 교회 목회자 치고 2세에 대한 마음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당장 그것을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교역자 수급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적인 목회 대상인 이민 1세들을 섬기는 것만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평신도는 목회의 대상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 목사는 누군가는 한인 2세를 위한 목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의 장로 몇 사람과 마음을 모으고 자신이 그런 목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자신의 생각대로 2세를 위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 1세와 2세 사이의 문화적 간격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도 큰 문제였어요. 1세들은 한국어가 편하지만, 2세들은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이하 포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지요. 그러다보니 예배도 한국어 예배와 포어 예배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대부분 1세들은 한국어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포어 예배가 점점 부흥하고, 한국어 예배는 그렇지 못했어요. 얼마 후에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예배를 하나로 합치자며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포어는 통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세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예배를 합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장로님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1세들만을 위한 결정이지 2세를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장로님들의 요구대로 결정한다면, 2세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던 제 계획은 완전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 목사는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리는 CAL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 옥한흠 목사의 교회론 강의를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며, 따라서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야 한다는 말은 제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평신도를 사역의 대상으로만 봤지 동역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민 1세들을 목회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한인 교회의 현실과 미래가 참 답답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브라질로 돌아온 고 목사는 1세 성도들을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기보다 차라리 2세들을 데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편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결국 2001년 1월, 고 목사는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4년 만에 사임하고 1.5세 청년 6명과 함께 새롭게 아과비

바교회를 개척했다.

제자훈련은 성경공부가 아니다

사실 고 목사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제자훈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척 때도 사실은 1세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실시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의 제자훈련은 지금의 제자훈련과 조금 달랐다는 것이 고 목사의 설명이다.

"우선 교재가 달랐어요. 처음에 사용한 교재는 브라질에서 개발된 IBEL이라는 교재였는데, 성경을 주제별로 공부하게끔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와 비교하면 논리적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했지만, 연역적이고 삶을 터치하는 부분이 약한 교재였습니다. 반대로 옥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는, 훈련 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꺼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IBEL 교재로 제자훈련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변화되긴 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고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 목사는 제자훈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제자훈련은 철저히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지요. 그냥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귀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고 목사는 어떻게 교재를 바꾸게 되었을까?

"CAL세미나에 가서 제자훈련 교재를 처음 접했는데, 질문이 굉장히 귀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개방적인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 교재가 잘 맞겠다는 생각에 아과비바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과비바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고 목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6명의 개척 멤버들과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글판 교재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들이 한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고 목사가 매 주마다 한 과씩 교재를 포어로 번역해서 프린트물로 복사하여 가져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수확이 있었다. 훈련생들이 자연스럽게 포어 교정을 봐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예화 같은 것도 브라질 상황에 맞는 예화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그 결과 아과비바교회는 브라질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포어판 제자훈련 교재를 손에 넣게 되었다.

고 목사의 예상대로, 제자훈련 교재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딱 맞는 교재였다. 귀납적으로 구성된 질문들은 브라질 훈련생들에게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문제들을 제자훈련 시간에 꺼내놓았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놓아도 '이 사람이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상처를 오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에 계속 잘 나올 수 있을까 염려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속을 오픈하고, 아픔을 꺼내놓는 과정을 통해 이들은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고 목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훈련에서 자신을 기꺼이 오픈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훈련 시간에 나온 이야기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훈련생들이 그 원칙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과비바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맺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고 목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정말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골라서 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예요. 일단, 이현재 장로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군요."

교회 개척 1년 후부터 아과비바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

고영규 목사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은 섬김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 일례로 브라질 현지 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예배 후 식사 시간에 김치를 내놓던 것을 치우고, 한 달에 한번 있는 전도집회에 별식으로 한국 음식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차 성도들 사이에 가족의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제자훈련을 통한 아과비바 기적을 이루는 단초가 되었다.

다는 이현재 장로. 그는 아내가 아과비바교회의 6명의 개척 멤버 중 한 명이라는 이유로 고 목사로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장로님의 부인인 자매가 제게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제게 일대일로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만난 이 장로는 깐깐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다.

"만날 때마다 이상한 질문들을 준비해 와서 제게 물어보지를 않나, 제가 성경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럼 성경이 뭐 나쁜 거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현실을 사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라면서 요리 조리 빠져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중에 저희 교회로 들어와서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고 엄청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일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감당하기 힘든 헌신도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해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제자훈련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현재 장로 역시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저 교회만 잘 나가고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왕에 한 번 사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소그룹을 맡겨 주시면서 한 번 인도해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소그룹을 맡아서 인도하면서 영혼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아과비바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는 이현재 장로의 소그룹 멤버였던 이들이 많다고 한다. 고영규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 지도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지요."

브라질 사람들 중에 변화된 경우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고 목사는 또 한 성도의 사례를 소개했다.

"저희 교회에 의사가 직업인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오픈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어릴 때 꿈이 가수가 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비록 의사가 됐지만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끔씩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찬양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통해 가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꿈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가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자훈련의 열매는 섬김으로 나타난다

아과비바교회에서 훈련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은 장로는 아과비바교회를 이렇게 소개한다.

"저희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식사 당번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기 때문입니다."

최성은 장로의 말에 의하면, 아과비바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청소하거나 주일날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것을 특별한 봉사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섬김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브라질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다른 한인 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한다. 교회 청소는 용역으로 사람을 사서 시키는 경우가 많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청소하거나 궂은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브라질 사람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의사로 일하는 유영수 장로의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는 이유가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라고 고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나 장로 직분을 받을수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번은 동료 의사들이랑 식당에 갔는데 제가 물도 따라주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움직여서 갖다 주니까 '왜 네가 움직이느냐' 고 묻더라고요. 식당에 왔으면 대접을 받아야지 손님이 왜 서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으레 제가 하니까요."

섬김은 희생을 수반한다. 고영규 목사는 아과비바교회가 브라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했다.

"사실 1.5세나 2세나 참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할 때도 초창기에는 김치를 반드시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바로 김치냄새를 없애는 거래요. 브라질 사람들이 김치냄새를 맡고는 어디 가스가 터졌냐며 식당 근처에 오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앞으로 교회에서는 김치를 먹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도초청 예배 때는 한국인들도 올 수 있으니까 별식으로 한국음식을 한 가지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잡채나 떡볶기, 육개장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내놓았는데, 놀라운 건 나중에 브라질 사람들이 이 한국 음식을 하나둘씩 먹기 시작하면서 맛을 들이다 보니까 음식이 남으면 집에 싸갈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브라질 사람들도 김치를 먹고, 오히려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음식을 더 좋아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섬김과 희생을 결정했지만, 결국은 다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지요."

고영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제자훈련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리더가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이고, 명령이며 제자훈련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 가족이 되라

교회 전체적으로 제자훈련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성도들 사이에 가족의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유영수 장로의 말이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1.5세, 2세 이런 말이 없습니다. 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과비바의 기적'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일어날 브라질 사회와 브라질 교회의 기적을 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십시오."

라질인, 한국인 이런 말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주보나 어떤 모임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샘터라고 부르는데, 샘터도 브라질 사람과 한국 사람을 나누지 않고 함께 섞어 놓았습니다."

유 장로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고 목사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목사님은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에게 한국 사람, 브라질 사람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국과 브라질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크리스천 문화를 교회 안에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familie Aguviva' 즉 아과비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아과비바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아과비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이 서로에 대해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문화로 형성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이현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일단은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개척 멤버들이 다 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또 아과비바교회 개척 초기에 고 목사님하고 거의 1년 반을 매일 밤마다 함께 모여서 제자훈련도 받고 서로의 삶도 나누다보니 친구 이상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이 장로는 고 목사와 장로들과의 관계도, 목사와 장로라는 신분이 아닌, 가족 같은 관계라고 했다.

"사실 저희가 모두 고 목사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장로님들 대부분은 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승과 제자라는 느낌보다는 큰형과 동생들처럼 서로 대합니다. 그래서 왜 가족끼리도 싸우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금새 풀어지고, 무슨 일 있으면 완전 하나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딱 그 식이에요. 교회의 이러저러한 결정 때문에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절대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죠."

이 목사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싸운다는 표현은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처럼 서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싸움이 절대 아니다.

제자훈련의 원리를 놓치지 마라

아과비바교회는 제자훈련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한다. 도대체 제자훈련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열매를 맺은 것 같느냐는 질문에 고영규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런 열매를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제자훈련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지키기만 하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의 원리란 무엇일까?

"첫째, 이 제자훈련은 어느 특수한 민족이나 나라, 어떤 대상에만 적용이 가능한 훈련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성경적 목회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브라질인이나 한국인이나 동일하게 접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한국인이나 브라질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보지요.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적 시각에서 훈련생들에게 접근할 때, 이 제자훈련 교재는 비록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재가 됩니다."

고 목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제자훈련의 원리는 바로 모델의 원리이다.

"제자훈련이란 철저히 인도자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훈련이라는 거지요. 인도자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자답게 사는 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훈련생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현재 장로는 이런 말을 했다.

"저희가 처음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이 도대체 뭔지조차 몰랐어요. 그저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훈련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아, 이게 제자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 목사님이 제게 소그룹을 맡겨 주시면서 사람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목사님이 제게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섬긴 소그룹에서 나중에 제자훈련 받고 리더가 된 사람들은 또 제가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또 '아, 이게 제자훈련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 목사는 마지막 세 번째 제자훈련의 원리로 귀납법을 들었다.

"귀납법은 원리라기보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제자훈련은 귀납법으로 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는 잠언 27장의 말씀처럼, 귀납적으로 훈련할 때 훈련생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지요. 브라질 사람과 한인 2세들이 제자훈련 안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고 목사는 "어쩌면 제자훈련은 한국 사람들보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더 맞는 훈련인 거 같다"고 했다. 아과비바교회를 보더라도 한인 2세들보다 브라질 사람들이 더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자훈련을 받으려는 지원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간혹 준비가 아직 덜 된 사람들이 훈련에 들어와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3단계에 걸쳐 제자훈련을 받게 할지 탈락시킬지를 결정합니다. 1차는 순장들의 추천서를 통해 자격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장반에 초대해서 '당신들이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이런 사역을 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주 정도 교회 내 모임을 만들고 매일 모임에 참석하게 합니다. 일종의 헌신도를 보는 건데요, 이때 모임에 빠지면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훈련 1과나 2과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건지를 묻습니다. 32주 동안 계속 이런 훈련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럼 그때 자기가 계속 훈련을 받을 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 목사는 훈련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저희가 봤을 때 훈련을 통해 변화된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절대로 수료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졸업 기수를 매기는데, 지난 1월에 수료한 3기생 중에 5년 만에 수료한 사람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변화의 열매가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 낙제하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5명하고 같이 훈련을 시작했다가 낙제한 사람이 2명이 더 있는데, 그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고 목사는 이들이 제자훈련에 낙제했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 목사는 이들을 설득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과 타협을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이들이 맡게 될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고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7명 중 한 명이 자기는 끝까지 한 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머지 4명도 자기들도 끝까지 하겠다고 따라왔고, 2명은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고 목사는 이렇게 5년 만에 훈련을 수료하게 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그분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중에도 자기는 이런 거 다 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6학기(사역훈련 3권에 해당) 때 낙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절대 잘난 체 안하고 겸손하게 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훈련으로 변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을 꼽을 정도예요."

신뢰받는 리더는 이유가 있다

고영규 목사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동역자를 얻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신뢰란 강요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과비바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도대체 고 목사의 어떤 점 때문에 그를 이렇게 신뢰하는 것일까? 우선 이현재 장로의 말부터 들어보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 목사님의 투명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고 목사님도 단점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냥 솔직히 드러내십니다. 가식이 없으세요. 이분을 10년간 봐 오면서 여느 목사님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때가 참 많은데,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 모습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과는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유영수 장로는 고 목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저는 19살 때 고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은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처음 전도사로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요. 단적인 예로, 고 목사님이 아과비바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자훈련에 집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하고 제자훈련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하지 않을 수 없지요."

마지막으로 최성은 장로의 말이다.

"사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이미 갖춰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 목사님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어린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지요. 저희가 고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그런 태도입니다. 비전을 향한 열정 말이지요."

아과비바의 기적

지난 2007년, 아과비바교회는 총액 100만 달러가 넘는 교회 건물을 새롭게 건축했다. 당시 성도들은 장년이 70여 명 정도 모였고, 그들 대부분은 30대였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만 놓고 보면 절대로 건축으로 무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고 목사는 하나님이 아과비바교회를 통하여 브라질 땅을 깨우실 것을 내다보고 건축을 진행했다. 장로들 모두 고 목사에게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느냐"고 했지만, 고 목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며 장로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고 목사의 믿음처럼 그 일은 실제로 이뤄졌다. 최성은 장로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고 목사님이 왜 힘들지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브라질을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고 브라질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던 아과비바교회의 개척 이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건축의 이유가 조금이라도 그게 아니라고 느껴졌다면 아마 중간에 어떻게든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 목사님을 사용하신다는 확신과 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현재 장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과비바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일어날 브라질 사회와 브라질 교회의 기적을 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십시오."

10여 년 전 한 1.5세 목회자와 6명의 청년들로 시작된 아과비바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으로 메말라있고 침체된 브라질 교회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셨다. 이 새로운 생수를 통해 머지않아 메마른 브라질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며 제자훈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자훈련이 그저 한때 유행하고 사라지는 목회 방법론이 아니라 어느 상황과 형편에서도 접목 가능한 성경적 목회철학이라는 것을. 점점 메말라가는 한국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다시 부어주시길 소망해본다.

〈박순종 목사〉